



IAC 2009 Daejeon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 성과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조직위원회와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주”란 주제로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자료협조 : 2009 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역대 대회 중 최대 국가 참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대전 국제우주대회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에는 72개국 4,056명이 참가함으로써 양적으로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물론 질적으로도 1,614편의 논문이 발표돼 역대 최고 대회라는 평가다. 또한 대회기간 중 우주전시회에는 20개국 153개 업체 및 기관과 바이어 110명 등이 참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연구성과 및 신기술 발표와 비즈니스 프로그램 강화로 실질적 성과도 거뒀다.

우주강국 도약 계기 마련

무엇보다 이번 IAC를 통한 국가적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먼저 IAC 대회 개최지로서 우주에 대한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평가다. 이번 IAC를 계기로 한국이 국제적인 우주항공 국가로 부상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내외 전문가 및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젊은 우주 전문가 및 우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미래 세대들에게 큰 꿈을 키워주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수준 높은 우주 교육진행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국제 달 탐사 프로그램 참여, 아태지역 국가와의 위성 공동개발, 그리고 재난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선진 우주단체와 산업체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증진, 한국의 우주기술과 정보기술 등을 전 세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우주강국 도약 및 한국의 우주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주요 기관별 성과로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와 NASA간 항공우주

협력 공동보고서 작성으로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한미 협력기반을 마련했으며, 국제 달 탐사 프로그램 참여 및 아태지역 위성 공동개발 참여 등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협력도 촉진시켰다.

공동 주관기관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도 우주분야와 관련해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총 10개국(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프랑스, 대만, 독일,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세이셸 군도)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미국 NASA간 공동보고서 서명 및 교환을 비롯해 루마니아, 세이셸 군도, 국제우주대학과 우주분야 인력교류 및 양성과 관련하여 MOU를 체결했으며 위성 및 발사체 개발협력, 국제우주정거장 활용협력, 재난관리 위성사업 협력 등을 논의했다.

그 외 성과로는 국내외 한국의 우주개발 능력을 홍보해 해외 진출의 기회를 마련한 것은 물론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우주개발 산학연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우주분야 국제협력 저변확대와 국내 젊은 우주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 개최 결과

- 참가자 등록 : 4,056명(72개국)
 - 국내 : 1,889명, 국외 : 2,167명
 - 학술회의 : 3,148명, 전시회 : 908명
- 전시회 구성 : 153개 업체·기관
 - 국내 : 80개 업체·기관
 - 국외 : 73개 업체·기관
- 일반관람객 : 161,711명
 - 우주축제 : 153,110명
 - 전시회 : 8,601명
- 주요 내방인사
 - 국내 : VI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BH 이현구 과학특보 등 17명, 국회의원 3명(이상민, 이종혁, 박영아) 등
 - 국외 : 세이셸공화국 대통령, 외국 국회의원 9명
 - 국제기구대표(8명) : IAF, IAA, IISL, UN-COPOUS, COSPAR 등
 - 우주청장(11명) : NASA, ESA, JAXA, DLR(독일), CNSA(중국), ENES(프) 등
- 우주인 및 글로벌 우주기업 참여
 - 우주인 : 이소연(대한민국), Sergei Volkov(러), Oleg Kononenko(러), Janet Kavandi(미), Uli Bobinger(독), Dakao Do(일), Chiaki Mukai(일), Zhai Zhigang(중) 등
 - 글로벌 기업(10개사) : EADS(프), 아리안스페이스(프), Satellite(영), MDA(캐), BOEING(미), ANTRIX(인), 록히드마틴(미)

학술회의도 역대 최대 규모

이번 IAC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것 중 하나인 학술회의는 총 7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등록자만도 4,056명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특히 Highlight Lecture(4회), Plenary



이번 IAC 개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우주산업 발전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Event(10회)로 구성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우기종 녹색성장기획단장, 그리고 이소연 박사 등 유력 인사 연사 초청으로 참가자 호응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특별 세션으로 항공우주 특성화 대학 총장단 포럼이 최초로 개최됐으며, 159개 테크니컬 세션 개최로 최신 우주개발 현황 및 토론회도 개최됐다. 그리고 UN-IAF 워크숍에 우주개발국 60여명이 참석, 우주기술을 이용한 지구환경 모니터링 현황 및 기술 강연으로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

대회 기간 중 마련된 전시회도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IAC 전시회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해 유럽우주기구(E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 국가 기관을 비롯해 미국 보잉, 록히드마틴 등 153개 업체 및 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으며, 전시장에 대한 일반시민 관람 확대로 우주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크게 증진시켰다. 아울러 IAC 60주년, 달착륙 40주년, 항우연 20주년, 그리고 대전시 출범 60주년에 따른 주제관 운영으로 대전 및 IAC 역사, 한국 및 미국 우주기술 변천사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우주에 대한 관심도 유도했다. 물론 국내외 110명의 바이어가 참여한 것을 비롯해 비즈니스 미팅이 32건에 달하는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실질적 성과도 거뒀다는 평가다.

일반인들과 함께 한 우주축제

한편, 이번 IAC에서는 공식·문화 행사와 함께 우주축제도 진행됐다. 대회 기간 중 6개의 공식·문화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7천여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둘러봄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예술에 감동과 놀라움을 표시했다. 특히 IAC 대회로서는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주인 훈련코스 등 5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우주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게는 우주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 ⑥